

“형님 리더십으로 우승 도전... 마음껏 뒀 ‘판’ 깔아줄 것”

이범호 KIA 타이거즈 신임 감독



KBO리그 첫 80년대생 감독... 선수시절부터 ‘감독감’ 품혀 “2군 총괄 코치 경력 큰 도움... 한박자 빠른 경기 운영 배워 ‘하지마’라는 말 안할 것... 선수들의 역량 최대치 보고 싶어 개인 아닌 팀 색 중점... 일단 개막 전 부상 없는 훈련 주력”

“따뜻한 캡틴” 뜨거운 환호

선수들 익숙한 새 사령탑에 반색... 훈련 뒤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

감독 선임 소식에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활짝 웃었다.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 선수들이 13일 오전 훈련이 끝난 뒤 한자리에 모였다. 자리의 주인공은 ‘이범호 감독’이었다. 타격코치로 이번 스프링캠프에 참가했지만, 구단의 선택을 받으면서 ‘감독’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극비리에 감독 선임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선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새 감독’이었다. 감독 공백에도 캠프는 유쾌한 분위기 속 뜨겁게 전개되기는 했지만 개막날짜가 다가오면서 선수들은 취재진에게 “우리 감독님 누가 오시나요?”라고 묻기도 하면서 한국발 소식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선수단 내에 감독 선임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캠프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지휘봉을 들게 된 이범호 신임 감독도 전날 밤 선임 결과를 들었고, 가족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만큼 선수단에 ‘깜짝 소식’이었다.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캠프를 소화했던

선수들은 익숙했던 사령탑의 등장에 반색했다. 현역 시절 함께 했던 선수들에게는 할 말은 하면서도 따뜻한 ‘캡틴’이었고, 퓨처스 총괄코치와 타격코치로 이범호 신임 감독을 접했던 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은 ‘지도자’다. 뜨거운 박수로 감독 이범호를 맞이한 선수들은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잘 아는 이들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우승’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선수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새 사령탑을 맞이한 만큼 선수들은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승이라는 목표 지점으로 팀을 이끌어갈 ‘주장’ 나성범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나성범은 “2022년에 KIA로 오고 나서 편안하게 적응 잘하게 도와주신 분 중 한 명이다. 이적하면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며 “감독님도 정해졌고, 이제 선수들 야구 열심히 해야 한다. 성적을 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선택은 이범호였다. 현역 시절 ‘만루 사나이’로 통하며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KBO리그 레전드. 시작은 한화였지만 KIA를 대표하는 타자이자 ‘타이거즈 캡틴’으로 박수받았던 인물. 퓨처스 총괄코치로 일찍 사령탑 공부도 했던 만큼 많은 이들의 환영 속에 ‘이범호’가 출범했다. 선수 시절부터 ‘감독감’으로 꼽혔던 이범호 신임 감독은 1981년생이다.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 80년대생 감독’이라는 새 물길을 연 그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이범호 신임 감독과 일문일답.

- 구단에서 감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선수들을 가장 옆에서 잘 봐왔고, (감독 면접) 인터뷰 할 때 질문도 그런 부분이 많았다. 좋은 멤버를 어떻게 끌고 가서, 성적을 낼 것인지 많이 물어보셨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웃으면서 마음껏 뒀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선수단 미팅할 때 타이거즈 색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만들고 싶은 색은.
▶옛날부터 ‘하지마’가 많았던 것 같다. 선수들은 경기를 뛰기 위해 연습을 최소화해서 경기에 임하려는 게 강하다. 연습 자체를 게을리한다고 (지도자가) 생각하면 경기할 때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선수들의 그런 생각을 지켜주고 싶다. 대신 경기를 뛰여주는 게 중요하다. 경기 뒀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시키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멤버들이다.
-생각보다 일찍 빠른 타이밍에 감독이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감독이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타이밍이 빠른 거고 어떤 타이밍이 늦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늦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빨리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없듯이 젊을 때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갈 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좋은 코칭스태프분들 모시고 한다. 빠르다는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임무가 막중해졌다. 선수들만 믿고 가겠다.
-타격 코치에서 감독으로 자리가 달라졌는데.
▶옛날부터 ‘감독 자리에 가면 달라지지 말자’가 주관이었던. 달라진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 될 게 없다. 혼자 할 수는 없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빈틈없이 짜여져서 가야 팀 자체가 잘 돌아간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이다
-선수 때와 지도자가 돼서 성향이 바뀐 게 있는지.
▶바뀐 것은 없다. 긍정적으로 하는 편이다. 타격코치 할 때도 ‘잘 치고 와’ 이런 말보다 ‘못 쳐도

상관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수록 확률이 떨어진다. 긴장감은 있되 부담감이 없으면 확실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 투수들 같은 경우 볼넷이 많다는 압박이 제일 클 것이다. ‘볼넷을 줘라, 볼넷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볼넷을 주면 코치와 상의해서 투수 교체하면 된다. ‘볼넷 던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던지는 것과 ‘볼넷 줘도 바꿔주 시켰지’라는 마인드 가지고 던지는 것은 다르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감독 선임 소식을 듣고 타이거즈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을 것 같은데.
▶소식 들은 뒤 ‘을 게 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했다. 1-2분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자’ 이게 정답인 것 같았다. 타이거즈라는 팀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영광이었고 선수-코치로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팀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도 영광이었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선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겠다. 타이거즈에 감사하다.
-많은 것을 이곳에서 했던, 2017년 우승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시절이 가장 그림자. 이 선수들과 같이 또 한 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돌아보게 된다. 애들은 잘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한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걸맞게 나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수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삼진 먹었다고 해서 내 눈치 볼 필요 없다. 내가 선택해서 시합을 내보낸 것이다. 선수 못 치는 것도 감독의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다음에 잘 쳐주면 고마운 것인데 뭐라 하거나 인상 쓰거나 혼내면 그다음 타석까지도 영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다.
-선수들 성향, 성격 알고 시작하니까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멤버가 좋으니 경기 운영할 게 있다. 베스트 멤버가 안 아프면 계속 나가는 선수들이다. 몸이 안 좋다고 할 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말고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나가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개막까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안 다치고 엔트리에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이다. 연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워낙 몸관리를 잘해주고 있다. 4번째 타인대 큰 부상 선수 안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현재 KIA 타이거즈의 강점과 약점은.
▶선수들은 막아놓으면 말을 안 하고 공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긍정적인 애들이 많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못 지르는 애들이 우리 팀에 많다. 소리를 지르라고 놔두면 어떤 선수가 될지 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면서 해보고 했을 때 선수들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

고 싶다. 코칭스태프는 부상 관리란 잘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를 강조했지만, 그래도 제한할 부분은.
▶성격, 행동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야기할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생각하겠다. 타당성 없이 우기기만 하면 나도 가차 없어 한다. 부드러운 성향이지만 아닌 건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전 들어가기 전에도 선수들에게 한 번 이야기할 것이다.
-멤버가 좋은 만큼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멤버 없는 스트레스보다 있는 스트레스가 낫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다. 처음 하나가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판단은 경기를 보면서 나중에 하면 될 것 같다. 2군 총괄하면서 경기 운영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어떤 타이밍에 작전을 내야하고 어떤 타이밍에 끊어야 되는지 배웠다. 처음에는 한 박자씩 늦었다. 늦는 것보다는 확실히 빠른 게 좋다는 것을 배웠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다.
-감독이 되면 하고 싶었던 야구가 있는지.
▶잘하는 선수들이 간절함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많이 느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나가고 싶고 경기에 출전해서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고 싶다. 거창한 꿈이 아니고 그것만 하면 나중에 상황이 거창한 꿈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팀이 잘 꾸려져 있는데 내 색 넣어야 팀은 반대로 가게 된다. 팀이 가지고 있는 색에 더 좋은 색을 입힐 수 있게 하겠다.
-주장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장 같은 감독의 모습도 기대하는데.
▶주장 할 때 했던 느낌대로 감독이라는 자리를 하면 선수들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감독님에게 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범이가 와서 해주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게 팀에 가장 좋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캠프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분위기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선수들이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팀에 좋은 선수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다. 좋은 생각을 가진 고참 선수가 많으니 후배들이 잘 배웠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하는 대로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우승을 하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역 때 김민식 감독님, 김기태 감독님 이런 분들 계시는 워낙 선수들한테 맡겨서 잘해주시니까 ‘우리 감독님 우승 한번 시키자’ 그런 게 있었다. 선수들이 그런 마음 갖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한두 명이라도 그런 마인드 가져주면 고마운 것이다. 고참들이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 선수들이 순한 애들이 많은데 뭔가 센 것이 자주 들어가니까 눈치가 돼버린다. 그것만 고쳐주면 될 것 같다.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wool@kwangju.co.kr

‘범’ 돌아온다

우즈, 10달만에 복귀전... 내일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타이거 우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0달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한다. 우즈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0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우즈가 정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4월 마스터스 이후 이번이 약 10개월 만이다. 우즈는 지난해 마스터스 3라운드 도중 발 부위 통증으로 기권했으며 이후 발목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한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출전, 최종 합계 이븐파 288타를 치고 출전 선수 20명 중 18위에 올랐다. 이어 열린 PNC 챔피언십에는 아들 찰리와 함께 나와 공동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히어로 월드 챌린지와 PNC 챔피언십은 PGA 정규 투어 대회가 아니었다. 우즈가 공식 대회 복귀전으로 삼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역시 타이거 우즈 재단이 여는 대회다. 특히 우즈는 테일러메이드가 시장에 내놓을 골

프의류 ‘선 데이 레드’(SDR)를 이 대회부터 입고 경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즈는 또 이번 대회 캐디로 랜스 베넷을 기용한다. 그의 전담 캐디였던 조 라카바가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함께하기로 하면서 우즈의 새 캐디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우즈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1언더파 283타로 공동 45위에 올랐다. 지난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우즈가 마지막으로 정규 대회에서 4라운드를 모두 소화한 대회다. 우즈 재단이 여는 대회지만 우즈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 최고 성적은 우즈 재단이 대회를 열기도 전인 1998년과 1999년 준우승이다. 물론 올해도 우즈의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즈가 10개월 만에 나서는 공식 대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전 선수의 면면이 워낙 화려하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9명이 나온다.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의 이 대회 최고 성적은 2020년 강성훈의 준우승이다. /연남뉴스